

유스 출신 선수 K리그 등록 현황

전체 26% 209명 유스 출신
수원, 총 38명 중 13명 최다

2018시즌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K리그1 442명, K리그2 369명 등 모두 811명이다. 이들 중 유소년시스템을 통해 육성된 유스 출신은 총 209명(25.7%)이다. K리그1이 123명, K리그2가 86명이다. 이는 자체 클럽에서 육성된 선수와 타 구단 유스 출신을 모두 합친 숫자다.

자체 육성으로 프로 무대에서 뛰고 있는 유스 출신 비율은 108명으로 13.3%다. K리그1은 17.9%(79명) K리그2는 9.1%(29명)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운동하고, 또 프로무대에서도 같이 뛰다는 건 조직력을 다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구단별 자체 유스 출신 비율을 살펴보면 수원 삼성이 가장 높다. 수원은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세진을 비롯해 김건희, 유주안 등 13명이 포함됐다. 등록인원 38명 중 무려 34.2%가 자체 유스 출신이다. 그만큼 시스템이 잘 정착된 팀이다. 프랑스로부터 뛰고 있는 권창훈(니종)도 수원의 맏고 출신이다.

포스코가 모기업인 전남 드래곤즈와 포항 스틸러스가 뒤를 이었다. 전남은 34명 중 11명(32.4%), 포항은 37명 중 11명(29.7%)이다. 울산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는 나란히 25.0%의 비율을 보이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올 시즌 절대 강자 전북 현대는 15.2%에 머물렀고, 경남(7.7%)과 제주 유나이티드(5.6%), 강원(2.6%)은 10%를 넘지 못했다.

한편 K리그 유소년 클럽시스템 운영 세칙에는 ‘프로 클럽은 반드시 연령별 유소년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K리그1·2 소속 모든 구단에는 U-18, U-15, U-12, U-10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최현길 전문기자

K리그1 자체 육성 선수 비율(2018시즌)			
구단	등록인원(명)	자체 유스출신(명)	비율(%)
수원	38	13	34.2
전남	34	11	32.4
포항	37	11	29.7
울산	36	9	25.0
인천	36	9	25.0
서울	36	8	22.2
전북	33	5	15.2
대구	43	5	11.6
경남	39	3	7.7
제주	36	2	5.6
강원	38	1	2.6
상주	31	0	0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유스 트러스트·준프로 계약, 변화의 시작

K리그서 꾸준히 늘어나는 유스 출신 유스 트러스트 2년마다 시스템 진단 준프로 계약 통해 ‘미래 스타 지키기’ 지원팀 만든 연맹…협회 공조도 중요

요즘 한국축구가 어렵다. 기본 좋은 애기가 별로 없다. 여기저기 아픈 소리뿐이다.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연령별 대표팀의 성적도 저조하다. K리그의 인기는 바닥이다. 오랫동안 축구 현장을 취재해 왔지만 이처럼 침울한 분위기는 처음이다. 속수무책이라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 지 모르겠다는 관계자들의 모습도 자주 본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 성적도, 인기도 만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명예회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를 두 번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축구선진국이 부러운 것 중 하나는 유소년 정책이다. 뿌리가 튼튼하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은 축구발전에 큰 밑천이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축구굴기를 외치지만 투자만큼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바로 빈약한 기摘自 없는 유소년 정책 탓이다.

최근 K리그의 관심이 유소년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 다행스럽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자라나는 선수가 있어야 선수 공급이 되고, 제대로 배운 선수가 있어야 경쟁력이 커지는 건 상식이다.

수치를 보면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유스 출신 비율이 K리그1에는 27.8%(등록선수 442명 중 123명), K리그2도 23.3%다. 그들이 K리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수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유소년 육성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에 힘을 쏟고 있다. 유소년클럽 시스템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프로계약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하향 조정했으며, 유망주들이



축구선진국으로 가는 첫 단추는 유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다. 최근 프로축구연맹은 유스 트러스트와 준프로계약 등 유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주에서 열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왕중왕전 장면.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출전할 수 있는 대회를 늘리고 있다.

우선 유스 트러스트가 눈에 띈다.

현재 K리그 22개 구단 산하에는 연령별로 66개의 유소년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구단별로 수준차가 많이 난다.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그 제도가 바로 유스 트러스트다. 이는 유소년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이 제도는 2년마다 각 구단의 시스템을 진단한다. 진단 결

과는 영역별 현황과 함께 K리그 전체에서 해당 구단이 속한 상대적인 위치를 등급으로 매긴다. 누가 더 많이 투자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 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뿌리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준프로계약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동안 우리 구단들은 잘 키운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 이적으로 애를 태웠다. 투자를 하면 결과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

에 유망주를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도입된 게 준프로계약이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는 일본 J리그의 프로 2종 계약과 EPL의 장학금 제도 등이 있다. 준프로계약은 K리그 유소년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2~3학년 에 재학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구단은 매년 3명과 계약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계약기간과 연간 1200만원의 기본급이 조건이다. 계약한 고교생은 연맹 주최 유소년대회는 물론이고 K리그 공식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구단이 고민했던 걸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유망주를 해외로 이적시킬 때도 구단이 직접 협상할 수가 있다. 최근 준프로계약을 맺은 선수도 나왔다. 수원 삼성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매탄고 3학년 골키퍼 박지민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다.

저학년이 뛸 수 있는 무대를 만든 것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출전 기회가 적은 저학년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저학년리그를 신설했던 연맹은 올해 출전 팀을 10팀에서 14팀으로 늘려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K리그 주니어(클럽 산하 유소년팀 연중리그)에 ‘EPTS 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장비를 착용한 선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매치리포트까지 작성하는 시스템인데, 경기력 평가 및 선수 육성 체계를 강화할 기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연맹은 올해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유스지원팀을 만들었다. 지원팀의 영역은 제도 개선 및 규정 개정, 유소년 대회 개최, 선수지원 프로그램, 지도자 역량강화 등 광범위하다.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실효성이다. 욕심내기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K리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걸 원한다. 아울러 한국축구의 유소년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축구협회의와 공조도 필요하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려가야 하는 게 유소년 정책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자.

전문기자 choihg2@donga.com·체육학 박사

덕수고 정윤진 감독이 만드는 ‘꿈의 공작소’

정재우의 오버타임

실력위주 기용으로 고교무대 평정 졸업생 90% 넘게 프로·대학 진출 덕수 출신 양창섭 뎀탈부터 달랠조

황금사자기 3연패 해야하는 이유 다음대회뎀 후보선수들 많이 기용



덕수고 정윤진 감독은 모교에서 20년 넘게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고교야구 최고의 지장으로 통한다. 수많은 고교 유망주들이 정 감독을 만나 꿈을 키우고 실현했다. 정 감독과 덕수고는 16일 개막하는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3연패에 도전한다. 스포츠조선DB

절을 알차게 보냈으리라 짐작된다.

덕수고 정윤진(47) 감독은 20년 넘게 모교에서 후배들이 꿈을 품고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곁에서, 때로는 그 앞에서 거들고 있는 조력자다. 1994년 코치로 시작해 2007년부터는 감독으로 ‘덕수고 전성시대’를 열어나왔다. 그가 감독으로 취임한 이듬해 대통령배 정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황금사자기 2연패까지 덕수고는 지난 10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고교무대를 평정해왔다. 덕수고 졸업생들도 매년 90% 넘게 프로 또는 대학으로 향한다.

정 감독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꼽았다. “우선 내 스스로 근태에 철저하다. 많은 부분을 직접 챙기고 살핀다. 그러다보니 선수들의 기량과 상태는 물론 야구부의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력 위주로 선수들을 기용한다. 저학년이러도 실력이 뛰어나면 주전으로 쓴다.”

그가 소신껏 모교 야구부를 이끌 수 있는 데는 학교와 동문회의의 힘이 크다. 대개의 다른 학교들과 달리 정 감독은 학부모들이 아니라 동문회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동문회에서 월급을 받다보니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소신대로 우리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다. 물론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동문회로부터 혼이 난다(웃음). 교장선생님도 늘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신다.”

올해 덕수고 야구부원은 50명 가량이다. ‘실력 분위’라는 원칙에 입각해 어린 제자들을 경기에 내보내지만, 그만큼 포래의 조카들을 둔 까닭에 덕아웃 안 또는 밖에서 주전 선수들을 응원하는 후보선수들을 지켜보는 일은 여전히 몹시도 힘들다. 정 감독은 “가장 어려운 점은 모든 선수들을 주전으로 기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학생야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정했지만,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망울은 언제나 눈

에 밟힌다.

덕수고 출신 프로선수들로 화제가 옮겨지자, 정 감독의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다. 프로 대선배들도 감쪽 놀라게 한 대담성과 재구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창섭에 대해선 “중학교 때부터 남달랐다. 볼의 회전이 좋았다. 중3 때(덕수고 입학 전 스카우트 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재구력을 갖춰 더 좋은 투수가 되겠다”던 중학생의 어른스러운 말에 정 감독 역시 다시 한 번 자신의 사명과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정 감독과 덕수고는 5월 16일 개막하는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 첫 전국대회라는 상징성도 커다란 동기부여다. 그리고 이 대회가 중요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정 감독은 “운이 좋아서인지 매년 초반에 좋은 성적을 냈다. 그리고 나면 다음 대회부터는 저학년을 비롯한 후보선수들을 경기에 많이 기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전선수들의 혹사를 방지하는 한편 후보선수들의 기량향상을 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그누구의 것이든 꿈은 소중한 법이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꿈이든 다른 이의 꿈이든, 또 크든 작든 그 꿈을 이루게 해주려면 적어도 기회는 골고루 주어줘야 한다. 정 감독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의 꿈이 소중한 것임을 잘 안다. “꿈을 키우는 공작소”, 정 감독이 덕수고에서 실현하고픈 최우선의 가치다.

전문기자 jace@donga.com